

한화家 장남 김동관 전무, 부사장 승진

태양광 실적 인정... 3세경영시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한화큐셀은 김 부사장을 비롯한 14명에 대한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김동관 한화큐셀 부사장은 태양광 부문 사업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전무가 된 지 4년 만에 승진했다. 김 부사장이 내년 1월 합병되는 한화큐셀과 모회사인 한화케미칼의 경영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 부사장은 미국 세인트폴고등학교와 하버드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화그룹에 입사했다. 2010년 한화그룹 회장실 차장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화큐셀 상무를 영입한 뒤 같은 해 12월 곧바로 전무로 승진했다. 김 부사장은 태양광 사업 영업·마케팅 최고책임자(CCO)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독일·일본 등 세계 주요 태양광 시장에서 한화가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김동관 한화큐셀 부사장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그룹의 태양광 사업은 2010년 사업 진출 이후 한때 철수설이 나올 정도로 암흑기를 겪었으나 김 전무가 2012년 1월 태양광 사업에 합류한 이후 독심있게 사업을 추진해 지금과 같은 결실을 봤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사장은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한화케미칼과 한화큐셀 합병법인(가칭 한화솔루션)에서 전략부문을 맡는다. 태양광을 비롯해 석유화학, 소재까지 아우르는 한화솔루션에서 핵심 직책을 맡아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성장을 견인한다는 목표다. /김수지 기자 skim2935@

베트남 디지털혁신, SDS가 나선다

(소비코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등 MOU
물류 신규 사업기회 창출하고
디지털금융·유통 등 협력키로

삼성SDS는 지난주 삼성SDS 잠실캠퍼스에서 베트남 소비코 그룹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및 물류 혁신을 위한 사업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베트남 총리의 경제사절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소비코 그룹 응웬 탄 흥 회장은 흥원표 삼성SDS 대표이사와 워크숍을 통해 양사 협력 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1992년 하노이에서 설립된 소비코는 베트남 최대 민영 항공사 비엠텟을 포함, 금융, 유통, 부동산, 에너지 분야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으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물류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유통, 스마트시티,



삼성SDS 흥원표 대표이사(왼쪽)와 소비코 그룹 응웬 탄 흥 회장이 지난주 삼성SDS 잠실캠퍼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및 물류 혁신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며 양사 협력 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삼성SDS

멤버십 프로그램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특히 물류 분야에서는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소비코 그룹은 삼성SDS의 솔루션, 플랫폼과 사업 경험을 적용해 기존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고, 더 많은 사업 기회를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삼성SDS는 ‘대외사업을 통한 혁신적 성장’ 경영방침에 따라 지난 7월 베트남 IT서비스기업 CMC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등 동남아 기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KT “AI 로봇이 객실로 수건 배달”

국내 최초 AI 호텔로봇 ‘엔봇’ 선배

KT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호텔인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이하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에 AI 호텔 로봇 ‘엔봇(N bot)’을 상용화했다고 2일 밝혔다.

KT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가가지니 호텔’ 솔루션을 진화시켜 AI 호텔 로봇을 상용화했다. 객실 내 가가지니 호텔 단말을 통해 음성이나 터치로 객실용품을 요청하면 배달은 호텔 로봇이 대신한다.

AI 호텔 로봇은 KT 융합기술원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3D 공간맵핑 기술, 자율주행 기술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돼 객실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수 있다. 호텔 엘리베이터와의 통신을 통해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승하차 하며 층간 이동이 가능하다.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은 약 100여 개 객실에서 AI 호텔 로봇을 통한 호텔



KT 흥보모델들이 AI 호텔 로봇을 소개하고 있다.

용품 무인 배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서비스 제공 객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가지니 호텔로봇을 이용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12월 24일과 25일 이틀간 크리스마스를 맞아 엔봇이 호텔 로비를 순회하며 체크인 고객을 대상으로서프라이즈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AI 호텔 로봇 도입과 함께 기존 안다즈에 적용된 다국어 서비스가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으로 확대 적용됐다. 가가지니 솔루션이 적용된 전체 AI 호텔에 다국어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 올레드 TV, 해외서 ‘올해 TV’ 휩쓸어

美 타임지·英 IT 매체 등서 선정

LG 올레드 TV가 전세계에서 올해 최고 TV 자리를 휩쓸고 있다. 2일 LG 전자에 따르면 올레드 TV는 최근 미국 USA투데이 선정 ‘올해의 베스트 100 제품’ 중 ‘베스트 TV’를 차지했다.

올레드 TV는 높은 명암비와 블랙 표현, 부드러운 움직임과 시야각 및 색재현 등에서 극찬을 받았다.

미국 영상 전문 매체 ‘하이테크 다이제스트’에서도 ‘올해 베스트 4K TV’로 올레드 TV를 올렸다. 완벽한 블랙과 HDR, 인공지능 기능 등이 호평을 받았다. 캐나다 ‘알팅스’도 올레드 TV를 ‘최고 TV’에 올렸다.

미국 타임지도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를 ‘미래의 TV’로 꼽았다. ‘올해 최



멕시코시티 샘플룸에서 연말을 맞아 LG TV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 /LG전자

고의 발명품’으로도 선정해 시장 주도력까지 인정했다.

영국에서도 올레드 TV를 향한 호평이 이어졌다. IT 매체 ‘트러스티드리뷰’는 올레드 TV를 ‘올해의 TV’에, L

G 시그니처 올레드 R를 ‘올해의 혁신 제품’으로 선택했다. 영국 ‘왓하이파이’ 역시 ‘최고 TV’에, ‘AV포럼’도 ‘올해 최고 TV’와 ‘최고의 게이밍 TV’에 올레드 TV를 낙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중, 내빙 원유운반선 2척 수주... 올 목표 달성 ‘눈앞’

총 71억 달러 수주... 작년 실적 넘어

삼성중공업은 2일 유럽 지역 선사에서 아프리카막스급 내빙 원유운반선 2척을 모두 1875억원(1억60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선박은 2022년 3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아프리카막스(AFRamax, Amax)급은 수요가 가장 많고 경제성이 뛰어난 8만5000~12만5000DWT(재화중량톤수, 선박 자체 무게를 제외한 순수한 화물 적재 용량) 크기 선박이다.

이번에 수주한 내빙 원유운반선은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에서 최대 70cm 두께 얼음과 충돌해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으며, 일반 동급 선박에 비해 가격이 2배 가까이 비싸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5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방향 쇄빙 유조선 수주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인도한 동급 내빙 원유운반선. /연합뉴스

하며 쇄빙 상선 시장을 개척했고 2008년에는 세계 최초 극지용 드릴십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71억 달러를 수주해 올해 목표 78억 달러의 91%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적(63억 달러)을 넘어섰다.

선종별로는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13척(11월 25일 공시분 제외), 컨

테이너선 6척, 원유운반선 16척,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 특수선 1척,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및 하역설비(FPSO) 1기 등 총 39척이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클락슨리서치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전세계 조선소 순위에서 수주잔량 58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4개월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SKC&C

북미·유럽 ‘배틀그라운드’ 클라우드 서비스

SK㈜ C&C는 글로벌 게임 기업 펍지주식회사가 ‘클라우드 제트’를 기반으로 ‘플레이어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의 북미, 유럽지역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SK㈜ C&C는 ‘클라우드 제트 vGDC’를 통해 북미, 유럽 지역의 배틀그라운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제트 vGDC는 전용 물리 서버를 할당하는 IDC와 인프라를 빌려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을 하나로 묶은 베어메탈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다.

랙 단위 베어메탈 서버는 물론 대용량 트래픽, 프리미엄 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다른 고객과 센터내 서버 자원을 나눠 쓰지 않고 전용 물리 서버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해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대용량 고성능 게임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요구하는 게임사들에게 안정적이다.

클라우드 제트 vGDC는 클라우드 제트 포털에서 손쉽게 주문 가능하며 24시간 내에 전세계 데이터센터에서 사용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